여열사 竹稚 권애라의 생애【10】

견우와 직녀성의 세월[承前]

길림에 도착한 김시현은 그곳에 있는 여러 동지의 환영과 위로를 받았다. 그는 곧 유봉영劉鳳榮、서일보徐日甫、박시해朴視海 등과 조선독립동맹朝鮮獨立同盟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에 착수했다. 김시현은 여기저기에서 자금을 모아 돈화현敦化縣에 너른 토지를 구입해 표면상으로는 큰 농장을 경영하는 것으로 하고 실은 그 안에 독립군양성기관을 만들고자 했다. 길림吉林지역에 자리잡은 동족 재산가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우선 그곳에 연락기관으로서 ‘ 민생의원民生醫院 ’이라는 병원을 하나 설치해 놓고 나머지 자금은 토지 매입을 위해 돈화현으로 가지고 갔던 것이다. 그러던 도중에 중국 관헌에게 체포되어 중형重刑의 감방에 갇히는 바 되었다. 일이 맹랑하게 되었는데 이때 전부터 김시현의 위인을 잘 알고 있던 중국인 승심承審(검찰관)한 사람을 그 안에서 만나게 되어 그가 보증을 서주는 바람에 3개월만에 석방이 되었다.

김시현이 석방되어 나오니 천진공과대학天津工科大學의 교수로 있던 김규식金奎植에게서 급히 만나자는 기별이 와 있었다. 김시현은 길림의 동지들과 숙의한 후 천진행을 하였다. 김시현이 천진으로 가 김규식을 만난 것은 1931년 2월이었다. 두 사람은 호형호제呼兄呼弟의 사이로 김규식은 이때 53세이고 김시현은 49세였다.

“ 형님, 참 오랜만이외다. 막부幕府에서 작별한 지도 어언 10년이 되어갑니다. 우선 건강하신 얼굴을 뵙게 되니 다행입니다. ”

“ 생각하면 감회가 깊소. 그동안 아우님 신명身命이 늘 걱정되던 터인데 이렇게 상면하게 되니 반갑소. ”

“ 헌데 저를 이리 부르신 것은 어인 일이십니까? ”

“ 우리가 모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신변이니 너나없이 피차가 일반이라 특별히 옥고를 위로하고자 오시라 한 것은 아니오. 그보다 우리 독립투쟁의 장도長途를 위해 뭔가 새로운 기획을 해보자고 아우님을 불렀소. ”

“ 그 새로운 기획이 어떤 것인데요? ”

“ 군관학교를 세우고 제대로 훈련받은 정규 독립군을 양성하는 것이외다. ”

김규식은 남경南京에 독립군의 비밀군관학교軍官學校를 세우고 고급 독립군 장교를 양성할 계획을 말했다. 비용은 중국 국민정부의 장개석蔣介石 총통에게서 매월 1만원元씩 원조를 받기로 하였고 김원봉、윤세주尹世周、박효삼朴孝三 등 의열단 간부와는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다 하였다. 김규식은 이를 위해 김시현이 남경에 같이 가자고 부른 것이었다. 김시현은 김규식과 같이 기꺼이 상해를 거쳐 남경으로 갔다.

남경에서 모인 요인들은 상의하여 그 표면간판은 중국 국민정부군國民政府軍 제25사단 소속 군사훈련원軍事訓練院이라 걸고 실제는 조선민족독립혁명군 양성소로서의 군관학교로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교장은 김원봉金元鳳, 운영은 윤세주, 교무敎務는 박효삼이 맡고 김시현은 학생의 초모관招募官으로서 북경에 자리를 잡고서 군관으로 양성시킬 인재를 구하고 물색해 남경으로 보내는 일을 하였다. 북경에 자리해 은신하고 있었지만 그 대상 영역은 멀리 국내와 만주에서 화북華北 및 화중華中에 걸치게 광범하였다. 교육과정은 1년을 1기로 하여 1기에 50명씩 졸업생을 배출했다. 1933년 3월에 제3기생을 교육시킬 때인데 이를 탐지한 일제가 중국 국민정부에 조선인 군관학교의 해산을 엄중히 요구하였다. 이 때문에 비밀 군관학교의 존립이 매우 위태롭게 되었다. 그런데 이 군관학교에 대한 비밀정보를 일제에 넘겨준 것은 다름아닌 동군관학교 졸업생으로서 재주를 촉망받던 평안북도 출신의 한삭평韓朔平이라는 자였다. 의열단으로서는 이러한 배신매국자를 살려둘 수가 없었다. 한삭평은 북경에 있는 일제기관의 보호를 받으며 중요한 밀정업무를 보고 있으니 군관학교 출신 독립운동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이 화근을 제거하기 위해 남경에서 군관학교 출신 청년투사 둘이 북경으로 왔고 이윽고 한삭평은 복부에 비수가 박혀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 일이 단서가 되어 은신처에 있던 김시현은 일제 관헌의 추적에 걸려 체포되었다.

북경에서 일제기관의 갖은 고문과 취조를 당하면서 함구로 일관한 김시현은 이윽고 일본 본토의 나가사키長崎법원으로 송치되었다. 북경에는 일본의 사법기관이 없어서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나가사키법원에서 또 반년여의 예심豫審을 거치게 되었다. 예심판사 다무라田村가 하루는 김시현에게 마음을 터놓는 어조로 입을 열었다.

“ 한번 사담으로 물어보겠는데 조선독립운동의 방향을 바꾸어서 해볼 의사는 없소? ”

“ 방향을 바꾸다니 무슨 소리요? ”

“ 일본과 협력해서 해보라는 말이오. ”

“ 그거 좋은 말씀이오. 사실 우리가 지금 일본과 협력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일본의 정의인민正義人民은 우리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소이다. ”

김시원이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자 다무라 판사는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본 국가와 협력해서 해볼 의사가 없는가 말이오. ”

“ 우리는 일본 국가세력과 일본 정의인민세력을 구분해서 보고 있소. 후자는 우리의 벗이지만 전자는 우리와 양립할 수 없는 세력이라 생각하오. ”

“ 당신이 공산주의자는 아니겠지요? ”

“ 그렇소. 나는 공산주의자는 아니오. ”

“ 그러면 우리 국가와 협력할 수도 있지 않겠소? ”

“ 우리 조선동포는 극히 소수의 친일주구배走狗輩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일본국가에 반감을 품고 있소. 그러나 그들이 모두 공산주의자인 것은 아니오. ”

다무라 판사는 잠시 말을 그쳤다가 다시 물었다.

“ 피고는 이제 만주사변滿洲事變이 일어난 것을 아시오? ”

“ 알고 있소. ”

“ 대동아주의大東亞主義 원칙에서 일본 국가와 더불어 협력하여 만주국과 조선은 어떤 형태로든 그 원칙하에서 독립할 수가 있소. 이에 협력하여 조선의 독립을 추구할 의사는 없는가 말이오. 여기에 피고가 마음으로부터 공명共鳴한다면 피고는 곧 석방의 혜전惠典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오. ”

“ 물론 나는 오늘이라도 석방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오. 그러나 그것은 나가서 옳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욕망은 없소. ”

“ 그러면 피고는 중형도 각오한단 말이오? ”

“ 물론이오. 우리는 어디까지든 완전독립의 달성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달성을 위해 죽을 때까지 투쟁함이냐가 있을 뿐이오. 그 이외에는 누구와의 무슨 타협도 있을 수 없고 어떤 중형이나 그 이상의 것도 두려워하지 않소. ”

이러한 문답이 있은 뒤 예심은 종결되고 공판이 열려 5년의 징역이 언도되었다. 북경에서 체포되어 예심판결을 받을 때까지 1년의 시일이 걸렸지만 미결통산未決通算이 없어 김시현의 실제 복역은 6년이었다. 그리고 1939년 9월에야 김시현은 나가사키형무소에서 소정의 형기를 마치고 출감하였다.

나가사키에서 출감한 김시현은 일본의 수도 동경으로 갔다. 동경에는 그가 명치대明治大를 졸업하고 떠난 지 23년만이었다. 그곳에서 이리저리 지인을 만나 도움을 구하고자해서였다. 이 무렵은 일본 군국주의가 한창 침략전쟁을 진행중이어서 서민 생활은 고난과 불안에 싸여 있고 국가권력층과 관료의 눈은 핏대가 서 있었다. 그들의 설치는 분위기를 보고 김시현은 과대망상에 빠져 광분하는 일본의 실패가 머지않음을 볼 수 있었다. 일본의 실패는 곧 조선에는 독립의 기회가 오는 것이다. 자기가 6년 옥중에 있는 동안 밖에서는 그러한 기회가 성숙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김시현은 이러한 기회에 큰일을 해야 되겠다는 욕망에 불타게 되었다. 김시현은 일하기 위해 중국 화북지방으로 가야 했다. 그러나 전쟁중이라 화북으로 통과해 들어가는 것이 예측이 어렵게 되어 있었다. 일본정부 고위직에 있는 지인을 만나 화북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고위장교에게 소개하는 편지 한 장을 얻을 수 있었다. 어느정도의 독립자금도 마련해보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겨우 여비를 구해 가지고 서울로 향했다. 김시현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해가 바뀐 1940년 1월이었다. 서울에서 그는 부인 권애라와 아들 김봉년을 만났다. 이제 권애라의 나이는 중년의 45세이고 아들 김봉년은 20세의 청년이 되어 있었다. 김봉년은 이때에야 김시현이 아버지임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전에는 어쩌다 어머니와 같이 그를 만날 때 어머니가 ‘ 김선생 ’이라 호칭하므로 그저 어머니가 잘 믿고 따르는 독립운동자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근대잡지 효시 “ 소년少年 ” 지 창간 100주년 기념

전 국민『잡지읽기 대회』수기 공모

(사)한국잡지협회에서는 근대잡지의 효시라고 일컫는 육당 최남선 선생의 “ 소년少年 ” 창간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그의 업적을 기리고 창간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잡지중흥의 근본으로 삼고자 하며,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정보 및 문화산업으로서의 잡지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려 잡지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생활매체임을 부각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수기를 공모하니 많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 주최 : 한국잡지협회
◦ 후원 : 문화관광부 · 서울특별시
◦ 주제 : • 잡지와 관련된 자유 주제
• 잡지를 읽고난 느낌이나 평소 잡지를 보며 느낌이나 잡지에 얽힌 사연 등을 자유롭게 표현한 수기, 감상문이나 독후감 등
◦ 응모자격 :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
◦ 응모일정 : 2008년 8월 30일(당일 소인 유효)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잡지협회 홈페이지(www.kmpa.or.kr) 참고하거나 02)780-9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상내역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1명) : 100만원
- 서울특별시장상(2명) : 각 100만원
- 한국잡지협회장상(3명) : 각 30만원
- 입선(10명) : 상장 및 부상
- 장려(20명) : 상장 및 부상
- 독서지도자상(약간명) : 상패 및 부상
- 단체상(3개) : 상패 및 부상